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2월 31일 (제93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지금 네 때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사 60:1).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를 단련시켜야 정금처럼 나온다.

창기즈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들쥐를 잡아먹으며 컸다. 그는 배운 것, 가진 것은 없었지만 꿈이 있었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세계 정복이라는 꿈을 향해 남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훗날 그는 그런 귀가 나를 현명하고 담대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을 단련하여 위인이 된 것이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늘 내 안에 있다. 두려움, 자존심, 내 자신을 못 믿게 하는 불신... 이것들은 네 인생을 쪼먹는 암적 존재다. 가차 없이 당장 쫓아내라. 그래야 산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조용하면 모두 항수병에 걸리지만, 풍파를 만날 때 정신이 빛을 발하는 법, 인생이란 배도 풍파를 친구 삼아 전진하는 거다. 유능한 해군은 거친 파도가 만드는 것 아닌가. 탈무드에 승자는 눈을 밝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 당한다고 했다. 도전이 최고의 수비다.

“너 독수리야, 두려워말고 둥지 밖으로 뛰어내려라. 날개가 힘을 받아 날도록 창조하셨단다.” 두려움이란 둥지에서 뛰어내려라. 도전하면 용기가 솟고, 둥지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아래에서 대기하고 계시다 도와주신다.

어느 때까지 정거장에서 머뭇거리겠는가. 정거장은 버스에 오르라고 있는 것이지 주저앉아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주는 먹이만 먹는 곰, 범은 다시 돌아온단다. 야생으로 돌아가야 잠재된 능력이 나온다.

추위는 뛰면 도망가게 되어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18년이 너를 부르고 있다.

당신의 유언(遺言)은 무엇인가?

마지막 광복군이요, 전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헤쳐 나온 고(故) 김준엽 총장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하는 그의 아들이 유언으로 하실 말씀이 없는지 여쭙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내가 살아온 게 유언이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태어난 마당에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생일을 기념하느냐’며 단 한 번도 생일상을 받지 않았고, 일본군에 징용으로 끌려가자마자 탈출하여 광복군에 투신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오로지 역사학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양성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언제나 당당하게 “나를 닮아라!”고 외치는 분, 바로 이초석 목사님이다.

자신을 ‘예수의 종’ 이외의 그 어떤 수식어로도 불리길 원치 않으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는 분, 큰 자보다 깨끗한 자로 살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분, 물에 빠지면 자식보다도 성도를 먼저 구하겠다는 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삶을 33년간 이어오며,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곱씹하시는 분, 내 목회에 은퇴는 없

까? 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었던 순간, 세상의 의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은 경험, 따라서 천국과 그날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목사님은 스스로 고백하신 것처럼,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 같은 좁은 길을 가실 수 있는 것이리라.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족이나 제자들,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도원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크게 새겨놓



목사님이 유언처럼 새겨놓은 예루살렘기도원 조형물

에만 전념했다. 독재 권력의 회유나 협박에 단 한 번도 굴하지 않았고, 오로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철저히 정의와 원칙에 따라 공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 및 사회지도층들이 변절과 배신으로 일제에 부역했던가?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국가의 독립을 위해 기개를 떨친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런 젊은 기개와 충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유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실로 자신의 삶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일신의 영달보다 공적 대의를 위해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다며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공적으로 살다 공적으로 가시겠다는 분,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다스리겠다는(눅22:30)는 분, 그래서 “나는 오직 장차 받을 그날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편안함을 거부한다.”고 외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초석 목사님이다.

목사님의 강하고 담대함은 바로 이런 삶의 철학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비둘기 같이 순결하려 늘 자신과 싸우는 노력, 목사님은 이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치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 과정은 또 얼마나 자신에게 혹독해야 할

으셨다.

“내 일생은 기도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자신의 삶이 복음일 수 있는 사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내는 사람, 그리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한 해를 마감하며,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록 지금까지는 부족하였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사님을 따라서.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송구영신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오후 10시 30분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3:14~18)



의로운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하신다

12월 22일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만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지켜 주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저에게 꿈으로 계시하셔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써온 꿈의 노트를 뒤적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 일은 이렇게 되니 조심해라.’,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등,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일들을 꿈에 말씀하심으로 제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시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고, 당연히 예수중심교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계시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을 직접 열어 보이거나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는 구원자임이라.”고 말했습니다(마1).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대의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습니 다.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가지 않은 것도 꿈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2:12).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절세 미인인 사라를 보고 반하여 취하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 임이니라”(창20:3).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창20:4).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창20:6)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깬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그의 아내와 여종의 모든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마1:19).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꿈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

나님은 하나님 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세상의 빛이 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랑스런 자가 행여나 올무에 빠질까봐,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장래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의로운 요셉에게 장래의 일을 꿈으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마침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토로한 겁니다.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삼상28:15).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를 묵살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이를 무시하는 것인지를 하나님도 그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개꿈이야.’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현몽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시73:20).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줍니다. 땅의 중앙에 고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아래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해쳐서 들짐승과 새들이 떠나게 하고 간신히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몽했으니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 해 동안이나 동물 처럼 비

참하게 살았습니다.

본디요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의로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일에서 손을 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이를 무시해서 세세토록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올해 장로장립을 할 예정이었고, 모든 절차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저를 말리셨습니다. 장로장립을 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뤘습니다. 임직을 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꿈의 계시는 많습니 다. 제가 사람들 머리에 용접봉을 대니 시든 식물들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듯, 시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으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심을 미리 말씀 하였고, ‘명성’이란 두 글자를 주셔서 제가 세계에 명성을 떨치며 일하게 될 것

을 알게 하셨으며, 제 앞에 제자들이 많이 서 있는 꿈으로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설립될 것을 일찍이 보이셨습니다. 이는 ‘큰 자가 되기 전에 깨긋한 자가 되라’고 강조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쓴 저를 미쁘게 보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꿈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뤄진 것도 있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꿈의 노트를 가지세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를 무시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꿈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아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 동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십니까? 과감히 그 사람과 연을 끊으세요. 사후약방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데 오답을 쓴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데도 이를 피하지 못하는 자, 참으로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꿈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창40:8) 요셉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제대로 해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황되고 거짓된 꿈 해석자들(신13:1~5)에 대해 모세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렘23:25~32)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자는 성공할 것이며 고생하지 않을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朋友 이초석 목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목회자, 장로, 권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교사, 직원 및 모든 봉사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예수중심교단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부속 하나 하나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것을 알고 그 기능의 최선을 다하기에 태평양을 무사히 넘어 미국에 도착하듯이,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이라는 비행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려면 성경속의 믿음의 선전들의 신앙을 거울삼고, 또한 남을 살펴봄과 거울삼아 교정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현재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도 사랑은 없습니다.

현재 옆에 있는 분부터 사랑합시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합시다. 현재 옆에 있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지금 존재하는 남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우리 겸손히 남을 섬기고 배움과 정성에 우뚝 서서 어둔 밤 망망대해에 사랑의 등대로 비추어봅시다.

또한! 보석을 갈고 닦고 세공하지 않으면 돌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머리도 쓰지 않으면 녹슬고 맙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기 전에 녹을 제거하고 맘껏 활용하여 빛이 나게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드신 보석 중의 보석, 루비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잘 세공하셔서 빛을 발하며 세계 유일의 예수중심 교단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속이 되어봅시다. 나는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날을 생각하며 서로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 밝아오는 2018년 새해,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봅시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채워 주시리라”(마6:33).

다시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충성합시다. 또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밝아오는 2018년,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가족에게 범이 날개를 달고 뛰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연합성가대 대장, 임원, 대원, 지휘자 및 악기를 다루며 앰프로 봉사해준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요, 예수중심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면 남을 주의해서 보고, 반대로 남을 알고자 하면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남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며 배워서 정성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도 세공하지 않으면 돌과 진배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드신 보석 중의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잘 세공하셔서 빛을 발하며 세계 유일의 찬양대가 되시길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또한! 우리 주 앞에서 면류관 받을 날을 생각하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제일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가대가 됩시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밝아오는 2018년, 성가대원 모든 가족에게 범이 날개를 달고 뛰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 생명의 말씀 ::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하자

노마 진 모튼슨(Norma Jean Mortenson)이란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그의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렸다. 그래서 노마진은 남의 집에 양녀로 갔다. 그녀는 여덟 살 때 그 집에 하숙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욕스럽게도 1니켈을 주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노마진은 양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위로를 받기는커녕 호되게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 양어머니는 그 하숙생이 하숙비를 잘 내니 아무에게도 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노마진은

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알고 거기에 익숙해지며 자랐다. 그녀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그러다가 16살의 나이에 일찍 결혼을 했다. 그리고 1945년에 무기 공장에 페인트 공으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해군 사진작가가 그녀를 모델로 찍은 사진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일약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다. 그녀는 3번이나 결혼을 했다. 그러나 1962년 8월 5일 주일에 36살의 나이로 자살을 했다. 그는 알몸으로 침대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천국은 돈이나 명예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보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와 불행을 맛볼 뿐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이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추구되어야 한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천국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법사에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따르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33주년이다. 목사님의 바람은 교단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 말씀에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예' 하며 살라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천국이 도래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시작보다 중요한 마무리

또, 한해가 저물었다.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다시 시작된다. 각자 새 다이어리에 새로운 계획을 쓰고, 새롭게 할 일들을 적으며 새로운 다짐과 희망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2월 말이면, 지난여름에 지원했던 대학 입시의 수시 결과가 나온다. 단번에 합격하면 좋으련만. 수시의 꽃은 추합(추가합격)의 줄임말이라고 했던가? 많은 학생들이 12월 말과 1월 초, 중순까지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초조함에 연말연시의 어수선했던 이즈음이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 함께 공부했던 많은 학생들과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 합격한 아이들은 합격한 기쁨에 취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스스로 낙망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연락이 끊겨 버린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아이들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지만, 늘 합격/불합격 앞에서 유종의 미는 헛

된 바람이 되곤 한다. 아이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그동안 지내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눈앞에 닥친 결과에 정신이 팔려 선생님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 같다.

문득, '나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이 시기에 주님께 다짐했던 것들과 새로이 시작했던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눅17:11~19). 그때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혹시 나를 향한 음성은 아닌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늘 그렇듯이 2017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시시각각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고, 낙망과 좌절의 시간도 있었다. 헤어지기 어려

운 고통의 시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었기에 나의 2017년 한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좌절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한해도 잘 살기 위해 기도한다. 올해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지난 2017년을 무사히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절을 했던 그 나병환자처럼, 항상 내 마지막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에스키모들이 북극곰을 사냥할 때 피가 배어있는 고깃덩어리 안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겨둔다고 합니다. 피 냄새를 맡고 나타난 북극곰은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고깃덩어리를 뜯어먹다가 결국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피를 흘려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우매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려한 불빛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잠시 잠깐뿐인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꺼지지 않는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부패한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길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교단소식 ::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성탄절(聖誕節), 그야말로 성스러운 분이 탄생한 날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감사와 감격의 날이다.

어느 정당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환호하는 것을 보았다. 감옥행을 면하니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포하셨다. 감옥이 아닌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서울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유아유치부부터 대학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울동과 성극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드렸다. 유치부 아이들의 성극

'빈 방이 없어요'에서 유찬이는 연극 중 요셉에게 '빈 방 없어요.' 라는 대사를 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구유에 눕게 하실 수 없다며 자기 방으로 오시라고, 내 마음에 오시라고 울며 예수님을 붙잡았다. 과연 우리 마음에는 유찬이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을까, 세상 것들로 가득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있을까 생각했다.

'사도 베드로', 이는 중고등부 및 대학청년부의 연합뮤지컬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물음이었으나 베드로의 답과 심정은 사뭇 달랐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만났을 때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답이었기에 그랬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답과 심정은 어떤 것일까?

총회장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했던 베드로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은 죽음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동일하게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중심교회의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축제다. 부모님 생신 때 자식과 손주들이 재물을 펴고 노래를 하면 부모님이 그간 고생을 다 잊고 기뻐하듯,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넘게 준비한 재물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중심교인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쏟아지리라. 성탄절 예배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흔들리지 않는 인생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엇가락처럼 휘었고, 무너졌다.

그러나 31년 전에 지었음에도 이번 지진에 아무 피해가 없었던 포스텍(포항공과대학) 건물이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태준 前회장은 강진을 견디는 1,000년 갈 학교를 짓자고 매일같이 공사현장을 찾아 진두지휘하며 표준과 원칙을 고집했을 때 주변에서는 유난을 떤다고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서야 원칙과 기본의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발생하는 수준의 지진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설계와 완벽한 시공만으로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foolish man'이라고 하였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wise man'이라고 하셨다. 그들의 집은 외견상 볼 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극명한 차이가 난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그 중에서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 봤을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목만 들어봐도 우리의 인생 앞에 수많은 흔들림의 요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집, 인격의 집, 관계의 집, 삶의 집, 이 집들의 기초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라고!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올해가 값진 해였던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해였던
모두 잊어야 할 과거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